**A black text with black text

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**

**선교 활동 보고**

**변화의 선도자, 길을 열다**

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던 라트렐 클리포드 우드는 사진 속에서 우연히 가족사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.

그 사진에는 1901년 헌법이 작성될 당시 앨라배마 대법원을 주재했던 맥클렐런 대법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. "많은 흑인들이 어쩔 수 없이 글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없었던 상황과 그들이 비도덕적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, 이 헌법은 흑인들의 투표권 박탈을 '정당화'하는 구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"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. 또 그녀는 "제 고조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빼앗아간 집안은 맥클렐런 가문이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이야기가 아니었죠."

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

라트렐은 터스칼루사에 있는 [스틸맨 대학](https://stillman.edu/)에서 역사 전공자이자 2020학년도 졸업생 대표로 졸업했습니다. 스틸맨 대학은 미국장로교 [소수인종 공동체를 육성하는](https://www.presbyterianmission.org/ministries/racial-equity-womens-intercultural-ministries/leadership-development-leaders-color/schools-colleges-equipping-communities-of-color/) 세 곳의 장로교 연계 학교/대학 중 하나이자 역사적인 흑인 대학(HBCU)입니다.

그녀는 비즈니스와 미술을 전공했지만, 학자이자 리더, 사회 정의 옹호자로서 역사와 그 실제 적용에 매력을 느꼈습니다. 스틸맨 대학에서 그녀는 대학의 지속 가능한 건강식 이니셔티브 태스크포스를 공동 설립하고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리더이자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.

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['의회 흑인 코커스 재단'](https://www.cbcfinc.org)을 통해 워싱턴 D.C.로 갔습니다. 그리고 앨라배마주 제 7지구 의회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 2023년 라트렐은 빈곤에 시달리는 앨라배마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[앨라배마 어라이즈](https://www.alarise.org/)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. 구성원이 주도하는 이 단체에서 기아 정책 옹호자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. 이로써 지적 탁월성 추구, 개인 역량 발전, 공동선에 대한 헌신이라는 '스틸맨 방식'을 세상에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.

그녀는 교육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근로자의 권리, 형평성, 직장 내 웰빙을 증진함으로써,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해와 함께 성숙해졌습니다.

라트렐과 같은 학생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미국장로교 ['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'](https://specialofferings.pcusa.org/offering/christmas-joy/)의 목적입니다. 이 연례 헌금은 [연금국](https://www.pensions.org/your-path-to-wholeness/assistance-program)의 [재정 보조 프로그램](https://www.presbyterianmission.org/ministries/racial-equity-womens-intercultural-ministries/leadership-development-leaders-color/schools-colleges-equipping-communities-of-color/)과 [소수인종 공동체를 육성하는 장로교 연계 학교와 대학](https://www.pensions.org/)에 고루 분배됩니다.

"저는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회복적 정의를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"라고 라트렐은 말합니다.

헌금에 기부하면 라트렐과 같은 미래의 리더를 위한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정성껏 헌금해 주십시오!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, 큰 힘이 됩니다.

***기도합시다.***

*하나님,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의 성령이 저희 모두를 정의와 평화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리기 위해 저희가 겸손히 당신과 함께 일할 때, 이러한 정의와 평화가 가능하리라 믿나이다.* **아멘***.*